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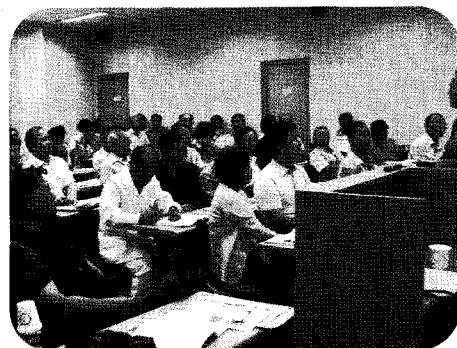
2010년 제1기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

우리협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2010년도 제1기 산림경영모델학교」운영을 하였습니다.

- 일시 : 2010. 9. 2(목) 3(금) [1박2일]
- 장소 : 전남 강진군 초당연수원, 청자촌, 다산초당
전남 해남군 고산윤선도 녹우단

- 참석자: 회원 91명
 - 서울·경기·강원: 9명
 - 충북·충남: 4명
 - 전북·전남: 60명
 - 경북·경남: 18명

- 운영내용
 1. 강의(초당연수원)
 - 하문섭 회장 개회인사(4p 참조)
 - 최민규 박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특강
「세계문명사와 임업의 미래」
 - 유근옥 박사(국립산림과학원)강의
「백합나무특성 및 조림기술」
 - 함흥식사무관(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
「산주지원정책안내」
 - 김기운 회장(초당림대표)
「초당림 성공사례」
 - 진재량 고문(안양산 자영휴양림 대표)
「산지활용사례」



유근옥 박사

▣ 성공사례 : 김기운 초당림 대표

- 우리협회 주천으로 동탑산업훈장 받음
- 42년간(1968~2010)초당림 1,000ha 조림
- 많은 시행착오 적합(경제) 수종 선발 식재(편백나무, 백합나무)
- 백합나무는 고도에 무관하게 적응
- 공이 없는 목재생산기술 정착(가격차가 심함)
- 산에 나무 심는 것은 아직은 본업이 아닌 부업 개념으로(장기투자)하되 백합나무 등 경제 수종은 앞으로 수지맞는 때가 반드시 온다.
- 식재기계 개발했으며 작업로는 필수



김기운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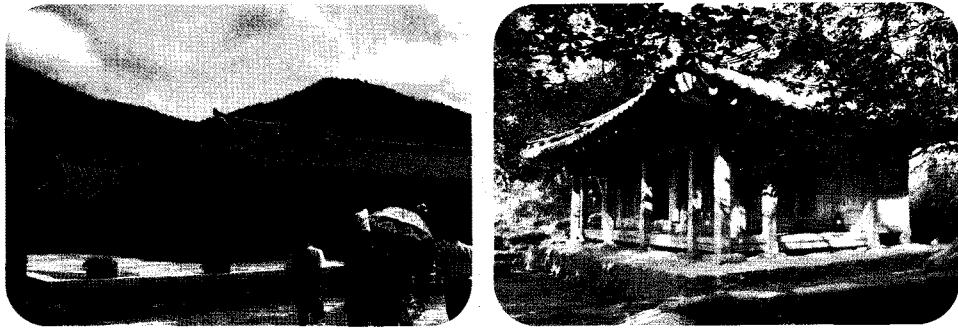
함홍식 사무관

2. 견학(현지)

- 강진 고려청자촌, 다산초당, 백련사
- 해남 고산 윤선도 녹우단



산림뉴스



□ 최민휴 박사 특강 「세계문명사와 임업의 미래」 요약

1. 기본개념

- ① 삼림(森林) : 임지(林地)+임목(林木)
- ② 산림(山林) : 삼림(森林)+산악원야(山岳原野)+산중호수(山中湖水)
→ 산림청용 개념
- ③ 임업(林業) : 삼림(森林)+인간(人間) → 임업인용 개념

2. 산림(山林)과 임업(林業)의 위상변화

① 17C~20C 개발연대

- 산림은 경제개발의 희생양(천덕꾸러기 산업)
영국산업혁명사(A.토인비 교수)
- 1695년 철강 18만톤 생산 → 숯 270만m³(매년 3만ha 산림개벌)
- 개별한 민동산에 개량목초심어 면양사육
- 철강+면직산업=영국산업 혁명의 기둥산업
- 영국개발 모델의 확산 → 미주19C 후반
일본명치유신 → 1960년대 박정희시대
→ 세계개도국
- 영국은 해외시장확보위해 식민지 확대
- A.토인비 교수의 세기적 경고 : 경제
개발로 인민의 소비생활은 향상됐으나
도덕적 타락과 지구환경 파괴로 인류의
멸망 우려



최민휴 박사

② 21C 지구환경연대

- 임업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상생산업(相生產業), 녹색성장의 황태자 지구환경연대가 도래 되어 모든 사회여건이 임업에 유리하게 전개 되고 있다.

-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

④ 회의의 별칭 = 리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 Silva (Forest) Summit

= UN삼림정상회의(森林頂上會議)

④ 준비위원장 Strong박사는 지구환경 살리는 논문 경제학논문을 찾다가 1960년 토론토 대학교수 Coase의 「사회비용의 제 문제」논문 발견

논문의 핵심 이론 : 경제의 외부성(External) 즉 공해(公害)와 공익(公益)을 재산권화(財產權化)하여 시장거래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 공업의 굴뚝연기는(公害)는 부(負)의 재산권이므로 사회에 돈을 물어야하고, 임업의 삼림은 공익이므로 정(正)의 재산권이므로 사회로부터 돈을 받아 내야 한다.

그 결과 탄소시장(炭素市場: 탄소배출권)이 탄생했고 산림원칙성명(山林原則聲明) 13조 C항의 정한 바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을 돈으로 환산하여 산림경영자에게 환원해야 한다.

- 1990년 전후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新自由主義經濟政策; 정부기능축소 시장기능 확대)

④ 1990년 전후 세계공산주의 몰락

④ 미국의 Reagonomics(레이건 대통령)

④ 영국의 Datcherism(대처 수상)

④ 한국의 2008년 MBnomics(이명박 대통령)

※ 참고사항

(順天者는 興하고, 逆天者는 亡한다) 天: 市場기능의 무서움

불란서대혁명(1789년)직전 로베스뻬에르수상의 우유값 50%인하 명령 → 10세에서 15세 아이까지 우유 먹이게 되어 어머니들의 인기로 재집권 → 사료가 부동 → 사료가 50%인하명령 → 사료업자 폐업 → 우유값 오히려 폭등 → 어머니들의 항의로 로베스뻬에르를 기요틴(단두대)에 처형 : 불란서대혁명의 도화선이 됨

산림뉴스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GreenGrowth)

· 탄소(Co2) 배출치 않는 산업 - 풍력, 태양열, 조수발전기술

·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임업 - 환경과 경제의 상생산업의 상징

Ⓑ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강조

배경 : Harvard Business Review 2010년호

토론토대 Roger Martin 교수의 논문 「주주자본주의의 종언(株主資本主義의 終焉)」

북미 500대기업 조사결과

- 주주자본주의 경영 배당률 : 5.9%

- 소비자자본주의 경영배당률 : 7.6%

(윤리, 환경 등 사회정책적 경영)

Ⓒ 이자율의 하락과 신수종개발(新樹種開發)

임업투자의 경제적 조건은; 이자율에 반비례하고 투자 수익률에 정비례하므로
시중이자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백합나무 등 신수종의 내부수익률(IIR)은
4~8%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임업투자의 활성화기대

임업투자조건 = 투자수익률/이자율

과거의 조건 : $1.0\% / 10\% = 0.1$

현재의 조건 : $4\sim8\% / 5\% = 0.8\sim1.6$

3. 결 론

1) 한국 경제림 선택의 문제점

소규모 영세성(2ha)

재래수종 수익률 1%

정부의 임정철학부재(林政哲學不在)

2) 한국 임업문제 해결방안

(회원간 토론과제)

강사의 대안(講師의 代案); 2010. 4. 10 조선일보 컬럼투고 참조(뒷면 11p)

3) 지난 20여 년간 국제적 국내적 여건변화가 우리 임업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
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우리임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주체는 한국 임업
인들이므로 주체의식, 책임의식, 역사의식의 각성이 요구됨



《조선일보 관련기사》

조선일보

2010년 4월 10일 토요일

A 31면

기고

박정희의 국토 녹화 미완의 제2단계

이명박 대통령은 '산하(山河)개조론'이 소신인 것 같다. 지금까지는 청계천, 4대강 살리기 등 하천(下川) 개조에 치중해 왔다. 산림(山林)은 국토 녹화(綠化)가 다 됐으니 개조할 것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 산림자원의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 녹화 계획은 2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1차로 민동산에 아카시아 같은 비료목을 심은 다음, 산지가 비옥해지면 2차로 경제수종으로 간신히 계획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2단계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산림 자원의 실상은 환경 자원일 뿐 경제자원이 아니다. 나무가 없어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외국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 정권 10년 동안 오판으로 경제사업이 국제경쟁력이 없다며 수종(樹種) 간신히 기피한 채, 녹화용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해 왔다.

백합나무처럼 빨리 크고 경제성이 높은 '돈이 되는 나무'로 바꿔야 한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 처지에서, 산의 나무를 충실히 비축한다면, 이보다 더한 국가 백년대계가 또 있겠는가. 나무는 석유같이 한 번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가능한 자원이므로 시작만 해 놓으면 네고 심고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지속적인 목재생산이 가능



최민호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

하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과거 우리의 녹화사업은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밀어붙여 성공한 경우다. 그러나 경제림(經濟林) 조성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맡겨야 한다. 반드시 정부는 후원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임업(林業) 비즈니스는 산에 임도(林道)를 낼 정도로 대형화·기계화해야만 생산유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적어도 3000ha(1ha은 1만평 정도) 이상의 대단지 경영기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한 사람이 평균 2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염세하다. 국가가 먼저 이 한계를 돌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소유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경영권만을 대(大)통합하여 단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약 400여개의 임

업경영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임업단지를 대기업 자본을 참여시켜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전경련에서도 여전히 되면 회원사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장기 지원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회사 이미지를 친(親)환경기업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영세한 산림소유자들이 경영권 통합에 호응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다. 산림개조사업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임업 선진국을 따라잡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가야 할 길이다. 국제협약은 '지속기능적 임업경영'을 통하여 지켜야 할 산림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한 산림소유자들은 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대규모 범인경영을 통하여 임업회사가 국제환경기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임업은 녹색성장 간판산업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가장 빨리 국토녹화에 성공한 나라다. 산림개조사업을 국제사업으로 추진해 임업경영 선진화를 이루면 나라의 모습과 격(格)이 바뀌게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임업신문 관련기사》

4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제673호 한국임업신문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임업의 상품 시장기능을 통한 적당한 대가 받아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모델학교 개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하문섭)는 지난 2·3일 양일에 걸쳐서 '제1기 산림경영모델학교'를 열었다. 전남 강진군 초당연수원에서 열린 이번행사에는 회원 9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교육에는 최민휴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의 특강을 비롯해서, 유근옥 국립산림과학원박사의 '백합나무 특성 및 조림기술' 교육과, 김기운 고문(초당림대표)의 '초당림 성공사례' 발표, 함홍식 산림청 산림소득과의 '신주지 원정책'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특히 최민휴 회장은 특강을 통해서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 것 뿐만아니라 환경적으로도 80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곧 산림경영인에 의해 창조한 정당한 경제적인 상품인 만큼 이러한 상품을

시장기능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재량 고문의 '산지활용 체험담'을 통해서 현장 임업경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총합토의를 통해서 하문섭 회장은 "김기운 고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초당림에서

특강과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가치가 우리의 정당한 생 산물인 상품임을 논리적인 토대 를 확보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경영모델학교에서는 초당림 견학 및 다산초당, 청자촌, 전남 해남군 윤선도 녹우당 등을 방문하여 회원들간에 우의 를 다졌다.



전남 강진 초당림에서 제1기 산림경영모델학교가 열렸다.

산림청,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산림작업장 안전관리요령 보급하고 취약사업장 점검하기로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6일 더운 날씨에 산악지역에서 이뤄지는 녹색일자리사업 작업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여름철 산림작업장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작업 일선에 보급하는 등 여름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날 고온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열사병과 탈진, 뱀·독충 등에 의한 피해, 높은 습도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산림 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해 소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책자에는 요즘과 같이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에 산악지역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 설명돼 있고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 요령도 상세히 수록돼 있어 사고 처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12일부터 30일까지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작업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산림사업 재해 예방 관리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작업자들은 폭염때 무리한 작업을 삼가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기계나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林

문 의 :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한동길 사무관(042-481-8871)

산림청 숲체원, '2010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돼

- 문화부 주최 온오프라인 평가서 장애인 우수관광시설 부문 수상 -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강원도 횡성 청태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문화교육센터 '숲체원'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제정한 '2010 한국 관광의 별' 장애인 우수관광시설부문 수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관광의 별은 1년간 국내 관광산업 발전이나 장애우 관광복지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일반인 온라인 투표 60%를 반영해 선정하는데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숲체원이 장애우 등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숲체원은 위기 청소년 및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의 소외계층에게 산림교육 및 다양한 숲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조성해 2007년 개원한 곳으로 지난해까지 17만7000여명이 이용했다.

숲체원은 청소년·직장인 등 이용계층에 따라 5개 분야 32개 단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 공동체 의식 강화, 숲에서의 자아성찰, 숲치유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등 연간 100회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숲체원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높은 산기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 안에 경사가 낮은 산길 산책로를 마련하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데크로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 곳은 숲체원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산림청은 숲체원이 장애우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휴양 및 문화, 교육·체험 등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숲체원을 이용하려면 한국녹색문화재단(02-2285-2035)이나 숲체원 고객지원팀(033-340-6309)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김평기 주무관(042-481-4216)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Carbon Offset)' 로고 공개

- 산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상징…산림이 인간 보호한다는 공익성도 표현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시범운영 중인 '산림탄소상쇄제도(Carbon Offset)'를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20일 공개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이 산림조성 등 산림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해 주는 제도로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신세계,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시범운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급된 인증서는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향후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로고 개발은 이 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추진된 것이다.

녹색 짙은 선으로 둘러싸인 산림에 파란색 원으로 표현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새 로고는 산림이 이산화탄소(CO_2)를 흡수하고 고정한다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본적 의미 전달과 더불어 인간과 산림이 중요한 공생관계이며 산림이 인간을 보호한다는 상징을 표현, 이 제도의 공익성도 함께 나타내도록 했다. 또 녹색 선의 끝을 화살표로 처리해 산림생태계가 순환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산림청은 이 로고를 앞으로 탄소상쇄제도를 실시 중인 사업지 등에 현판으로 세울 예정이며 관련 홍보물과 명함·포스터, 탄소상쇄를 인증해 주는 인증서에도 삽입해 사용하기로 했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용진 주무관(042-481-4133)

'보안림'? 이젠 '산림보호구역'이라고 불러주세요

- 산림청, 암호같이 어려운 한자투 · 일본어식 산림행정용어 94개 순화 -



'보안림', '하예', '치수무육', '운재로', '집재', '석력지', '을폐도'…

산림 작업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어려운 한자투나 일본식 표기인 턱에 일반 국민은 여간해서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마치 암호와 같은 단어들이다. 임업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이같은 어려운 산림행정용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순화돼 보급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일 국민 공모를 통해 어려운 산림행정용어를 찾아낸 뒤 국립국어원과 대학의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행정용어 자문단'에서 심의한 끝에 모두 94개(법률용어 24개, 행정용어 70개)의 산림용어를 순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안림(保安林)'은 '산림보호구역', '하예(下刈)'는 '풀베기', '치수무육(稚樹撫育)'은 '어린나무가꾸기', '운재로(運材路)'는 '나무운반길', '집재(集材)'는 '나무쌓기', '석력지(石礫地)'는 '자갈땅', '을폐도(鬱閉度)'는 '숲이 우거진 정도'처럼 알기 쉬운 말로 각각 바뀌었다.

산림청은 순화된 용어가 법률용어인 경우 법률개정 즉시 순화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순화용어를 법률용어와 함께 사용해 국민의 이해를 돋기로 했다. 또 산림 행정용어는 용어순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즉시 순화용어를 쓰기로 하되, 당장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어는 올해까지는 병행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순화용어만 사용하도록 했다.

〈용어순화사례〉

- 보안림(保安林) → 산림보호구역
- 독림가(篤林家) → 우수 산림경영인
- 하예(下刈) → 풀베기
- 수형목(秀型木) → 우량개체나무
- 벌채(伐採) → 나무베기
- 운재로(運材路) → 나무운반길
- 수고(樹高) → 나무높이
- 집재(集材) → 나무쌓기
- 간벌(間伐) → 속아베기
- 혼효림(混肴林) → 혼합림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하반기에도 산림행정용어 순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순화대상용어를 공모하려 한다"며 "알기 쉬운 산림용어를 가꾸는 데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김대훈 사무관(042-481-4046)

목재펠릿 원산지 및 품질확인 쉬워진다

- 26일부터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시행…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



26일부터 목재펠릿의 원산지나 각종 품질규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목재펠릿 품질규격 표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날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목재펠릿의 원산지 및 각종 품질규격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함수율, 회분, 발열량 등 9가지 품질규격과 원산지 · 품질등급 등이다.

지난해 5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 품질규격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표시 여부는 업자의 자율 사항이었던 탓에 그동안 원산지 및 품질 등이 불분명한 저가 불량 목재펠릿이 널리 유통됐고 이로 인해 목재펠릿 열효율 저하, 펠릿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 소비자의 불만원인이 돼 왔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으로 불량제품 퇴출, 투명한 시장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목재펠릿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과장은 이어 "산림청은 이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목재펠릿 보일러는 전국에 약 6000대가 설치됐고 난방용 목재펠릿은 수입품을 포함해 2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문 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함태식 사무관(042-481-4201)

몸과 마음 치유하고 건강도 지키는 '치유의 숲' 인기

– '산음 치유의 숲'에 관심커져…내년엔 편백림 · 숲체원에도 개장 –



숲에서 얻는 휴양 효과 이외에도 숲의 치유 기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산림청은 이곳에서 휴양림 이용객에게 숲의 치유 효과를 널리 알리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중에 하루 두차례(오전 9시, 오후 1시) 3시간씩 운영하는 '숲체험'과 매월 1~2회 주말에 1박2일로 진행하는 주제별 프로그램인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두 종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웹사이트(www.huyang.g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kim196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 휴양림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국립산음자연휴양림(031-774-8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치유는 피톤치드, 음이온, 자연 경관, 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활동으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널리 활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가 소개되면서 각종 질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도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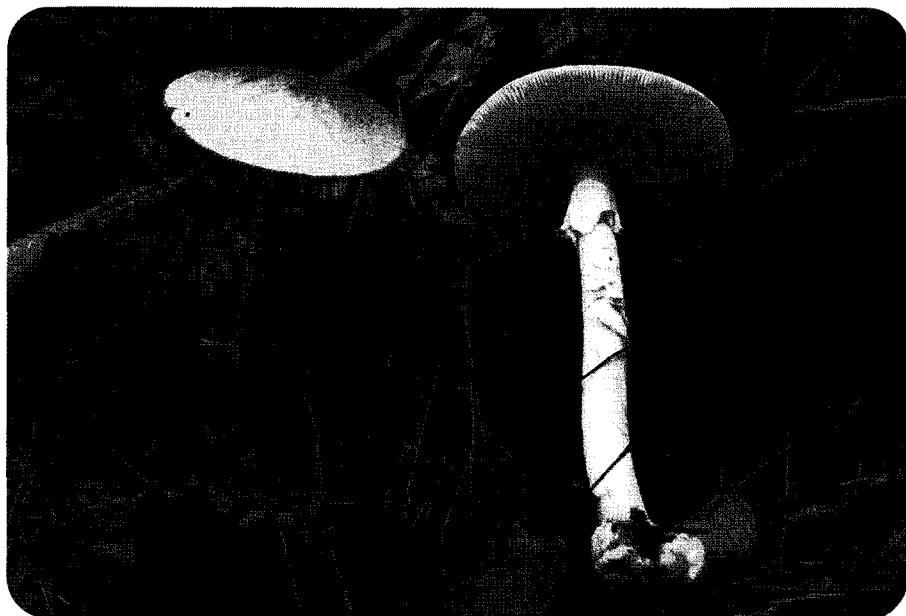
산림치유 활동을 식물, 물, 운동, 기후, 정신 및 식이요법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산림청은 산음 치유의 숲 이외에도 전남 장성 편백림과 강원도 횡성 숲체원에 금년 중 완공을 목표로 치유의 숲을 각각 조성 하고 있다. 이들 치유의 숲은 내년에 개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치유의 숲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올해부터 억불산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 충북 영동군 등에서도 내년부터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김 진 주무관(042-481-8877)

"웰빙 버섯 많이 자라는 데는 독버섯도 많아요"

산림과학원 "1600여 버섯 중 식용 30%…식용버섯 나올땐 독버섯 조심"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지금같은 시기는 버섯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비가 잦고 기온도 높아 야생버섯이 늦게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독버섯 중독 우려도 함께 높아져 버섯 애호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웰빙버섯으로 불리며 한국인이 선호하는 버섯이 많이 자라는 곳에는 어김없이 독버섯 개체도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버섯은 1600여종이 알려져 있고 이중 식용 가능한 버섯이 30% 정도, 그 나머지는 대부분 식용 불가능한 버섯이라는 얘기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일 "식용버섯을 채취할 때 독버섯도 함께 떨려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버섯은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고단백질 식품으로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잘된다. 지방이 적어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는 식품이다. 또 항암효과, 비만억제, 혈압강하, 신경세포 생육 촉진 등의 효능이 있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한국인이 즐겨먹는 버섯인 꾀꼬리버섯, 다색벚꽃버섯, 향버섯(능이), 송이버섯, 표고버섯, 큰갓버섯, 외대덧버섯, 싸리버섯, 뽕나무버섯, 달걀버섯, 그물버섯류 등은 야생 상태에서 많이 자라고

시장에서도 많이 판매된다. 드물게 보이는 짹빛만가닥버섯, 연기색만가닥버섯, 잎새버섯, 개암버섯 등도 식용이다. 약용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꽃송이버섯과 불로초(영지) 등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웰빙 건강버섯류가 많이 나타나는 장소에 독버섯도 함께 자란다. 그래서 버섯을 채취해 식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0년 이후에는 10여년 전에 비해 독버섯 중독사고 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지만 독버섯 중독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독사고 원인 버섯 중에는 아마톡신을 가진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알광대버섯이 치명적 중독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편이며 일본에서는 화경버섯과 삿갓외대버섯이 많은 중독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노란다발, 절구버섯아재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잦다. 이들 버섯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종류다.

독버섯 중독증상은 식용 후 30분 정도가 지나면 현기증, 메스꺼움, 복통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섭취 후 10시간 정도 이후에 나타나므로 치료하기가 더욱 어려운 맹독성 버섯류다. 따라서 흰알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맹독성 버섯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바이오에너지연구과 강현 연구사는 "독버섯 중독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 본인이 확실히 아는 신선한 버섯만을 채취하여 식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잘못된 구별법을 맹신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버섯중독은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현기증, 메스꺼움,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먹은 것을 바로 토해내고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 의: 국립산림과학원 바이오에너지연구과 강현 연구사(02-961-2753)